천국 36 - 예수님 성 안의
지구촌 일들을 의논하는 곳

작성일 : 2010. 11. 19. (금) 3:20
작성자 : 김형순

[기도 중에 “천국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 느껴지며
주님과 에메랄드 빛 천국 문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팔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께 질문하니
주님께서 “나의 집으로 가자!”하셨습니다.

천국의 주님의 성은 멀리서 볼 때는
전체가 하얗게 빛나는 엄청나게 큰 성으로 보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성 옆으로
아주 예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에 비해 작아 보여서 장식품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의 꼭대기에는 큰 다이아몬드들이 걸려 있고
가까이에서 보면 성의 기둥들 곳곳에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의 보석들이
알알이 조화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은색의 정금 같은 보석들로
만들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의 문이 열리자 드레스와 하얀 옷을 입은 소수의 무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가까이 성문으로 다가갔고
문이 열리면서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안에는 흰색의 계단이 반짝이고 있었고
위쪽으로 여러 건물들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계단 옆으로는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큰
응접실 같기도 하고 회의장 같기도 한
넓은 홀이 보였습니다.
다소 복잡하며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고
천정은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가 타원형의 둥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중앙 앞쪽에 큰 보좌가 보였는데
다른 의자들보다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보좌를 중심으로
양가로 둥그렇게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장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의자들 앞쪽 가운데 타원형의 빈 공간에
바닥 안으로 산과 물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구의 모습이었고
지구의 모든 모습이 돌아가며 보였습니다.
축소 확대로 볼 수 있으며
전체의 지구 모습이 펴놓은 상태로도 보이고
어느 한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에 관한 것이 아래에도 보이고
위로도 홀로그램처럼 떠서 데이터가 보이는데
그 옆으로 누군가 서서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구촌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회의하는 장소이다
나의 사령관들과 함께하는 자리이며
이들과 함께 지구촌의 자세하게 의논될 것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처리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 사령관들과 보좌관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큰일들을 보고 받고
구하는 대로 도와주고 결정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의논하지만 나를 보좌하는 자들과도 의논한다
의논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리고 사명을 맡을 자들을 정해서 통치한다
이곳은 지구촌의 일들을 의논하는 곳이다
특히 너희가 특별히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의논하기도 한다
지구촌의 모든 일들이 이곳에서 보고되고
큰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각국에 보좌관들이 있어 나를 돕고

나의 일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이곳은 최고의 보좌관, 사령관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곳이다”

잘못 보고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시며
“보고는 상세히 이루어지고
전부 데이터화되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구가 보이는 바닥면이 움직여서 또 보니
바닥이 둥그스름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바닥면은 투명한 유리가 평평해지기도 하고
둥그렇게 불룩 올라오기도 하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바닥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는 곳이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계속 앉아 계셨는데
너무 위엄 있어 보였고 멋져 보였습니다.
이곳의 사령관들이 앉는 의자의 수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재, 집무실, 침실, 거실, 정원, 풀장, 운동시설,
편지를 담당하는 곳, 기도를 담당하는 곳,
심판과 재해를 담당하는 곳, 사랑의 글을 모으는 곳,
생명을 담당하는 곳, 국정전반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모든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많은 일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수많은 천인들이 이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처리하고 운행하고 있다
이 모든 기관들은 너무 중요하며
천국 곳곳에 기관들이 다 존재하지만
축소판으로 중요기관들이 이곳 나의 성에 들어와 있으며
이곳에 나를 도와 일을 처리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천인들은 뽑고 뽑아서 온 자들이며
중요한 일들을 나와 함께 처리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나의 몸 되어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성에 예수님 방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중요 행정기관들이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곳의 크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이고
지구의 각 사람에게 배치되는 천사들도
이곳에서 결정되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도 너희 선생은 혼자 그 모든 행정을
나와 함께 의논하며 처리하고 있다
그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하며
한번도 나에게 하소연하며 가슴 아픈 말 한 적이 없다
영계에는 수많은 자들이 나를 보좌하며 그 일을 돕지만
너희 선생은
중요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해 나에게 구하고 간구해
그 일들을 처리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늘 행정을 이 땅에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결정하고 분별하고 행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정신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선생의 손발이 되어
함께 돕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너희 선생을 위해
너희 모두 하나 되어 돕고 기도하며 움직여야 한다

나는 천상에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도우며
최고의 섭리로 이끌기 위해 너희 선생과 상의한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하늘 행정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게
너희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힘을 보태어 주어라

나는 행하는 자를 돕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 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며
내가 행해야 할 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며 가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해 내 오늘도 노력하고 수고하며
발에 불이 나게 다니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탄에게 틈 주지 말고 살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하며 모든 소원 이루어주니
나에게 부탁하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행하도록 하여라

사랑한다
오늘도 천국에 한 부분을 보여주었지만
이 천국은 참으로 넓고 깊고 오묘하며 신비하단다
사랑한다”